

# 동해를 잇다, 미래를 달리다

## ... 포항 ~ 영덕 고속도로 개통

- 8일 오전 10시 30.9km 구간 개통... 포항~영덕 간 이동시간 23분 단축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와 한국도로공사(사장 함진규)는 동해고속도로 포항-영덕 구간을 11월 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.
  - 이번 개통구간은 연장 30.9km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, 총사업비 1조 6,11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, '16년 착공 후 9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되었다.
- 포항-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 까지 주행거리는 약 6km 감소(37km→31km,△16%)하고 이동시간은 약 23분 단축(42분→19분,△55%)될 것으로 예상되며,
  - 인접 도로인 국도 7호선 교통량의 상당 부분도 전환되어 출퇴근은 물론 해안 관광객 이동도 한결 원활해져 교통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포항-영덕 고속도로는 최초로 터널 내 위성항법시스템(GPS)을 시범 도입해 터널 내부에서도 끊김 없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전자 편의를 개선하였으며,
  - 동해 해안 도로의 특성을 활용하여 바다가 보이는 지점에 휴게소(2개소)를 조성하고 각각 선박 모양과,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하는 건축물을 조성하여 지역 홍보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\* 포항휴게소는 영일만의 선박, 영덕 휴게소는 영덕대게를 형상화함



△ 포항 휴게소



△ 영덕 휴게소

-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“포항-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경북 동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, 성장 촉매제가 될 것”이라 하면서,
  - “국가 간선도로망 남북 10축(강원 고성 ~ 부산시)의 완성을 위해 동해선 구간 사업들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도로국 도로건설과	책임자	과 장	오수영	(044-201-3888)
		담당자	사무관	송정규	(044-201-3889)
			주무관	배현식	(044-201-3896)
			전문위원	공규찬	(044-201-4780)
<협조>	한국도로공사 건설처	책임자	처 장	손영호	(054-811-3001)
		담당자	팀 장	안병선	(054-811-3050)

**□ 사업개요**

- (사업구간)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~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
- (사업규모) 연장 30.9km, 4차로 신설
- (총사업비) 1조 6,115억원
- (주요시설) 분기점 1개소, 나들목 3개소, 휴게소 2개소

**□ 추진경위**

- 2009. 3 :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
- 2011. 11 : 타당성조사 완료
- 2013. 8 : 기본설계 완료
- 2015. 12 : 실시설계 완료
- 2016. 8 : 공사착공
- 2025. 11 : 공사 개통(개통 : '25. 11. 8)

**□ 개통의미**

- 동해안 지역의 이동거리 단축 및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등에 따른 광역 도로망 구축 및 물류비용절감 등 지역개발 촉진

**□ 기대효과**

- 사회적 편익 423억원/년 절감, 주행거리 6km↓, 주행시간 23분↓  
※ (거리) 37.0km → 31.0km (△16%) / (통행시간) 42분 → 19분 (△55%)

